

농협개혁 1차안 내달 입법 추진 정부, 6월까지 2차안 제시 방침

농식품장관, 세종서 간담회
직선제 전환 등 개정안 처리 희망
조합원 94.5%·국민 95.1% 찬성
감사위 설치·감독권 확대도 추진
정치쟁점화 우려에 속도전 강조
비료·농업용필름 수급 안정 전망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 오는 6월까지 2차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회장직 직선제 전환 등을 담은 1차 개정안의 경우 5월 중 입법 마무리를 희망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간담회)를 갖고,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한 정부 측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일부 조합장 및 농업인(조합원) 등의 반발에 대해선, 민주주의 사회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전국 각지의 농협 조합원을 비롯해 국민 대다수가 개혁·재편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일각의 반론·재고 요구 등을 존중하되, 1차 개정안 입법과 2차 안 제시는 당·정이 내부적으로 협의한 시간표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송 장관의 방침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1차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마쳐야 정치 쟁점으로서의 비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전 완료를 위해서 입법을 서두른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농협 개혁을 논쟁만 하고 지지부진하게 끌면 우리 농업인한테 손해일뿐더러 국민들한테도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속도감 있게 일단락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줘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미) 입법 제안된 건 5월 중에 하연(회의의 통과되면) 어떻게 희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 발의안이 지방선거날을 넘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세종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

시 “정치적 쟁점으로 결합하게 될 것 같은... 좋지 않은 그림 같다”고 했다.

이는 선거 결과(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라 일부 지자체·정치세력이 정무적 반론을 쏟아 내면, 개정안이 의외로 길게 계류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또 지선 이후 2차 개정안을 내놓고자 하는 정부 입장과는 맞닿아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설명회 초입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지난주 국민들·조합원들 샘플을 뽑아서, 농협 개혁에 대해 필요성 내지는 찬성 여부를 설문해 의뢰했다”며 “조합원의 경우 94.5%가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 국민 95.1%가 필요하고 찬성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부항목 답변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농협 감사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 86%, 국민 93%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직선제는 조합원 83%, 국민 91% 찬성이다. 감독권 확대도 조합원 67.5%, 국민 85% 찬성”이라며 “많은 의견이 함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압도적으로 개혁에 대해 열망하는 분위기가 있다.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도 여러 명이 수없이 많은 의견을 준다. 지금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니까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여하튼 (농식품부 주관) 권역별설명회를 계속 할 것이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반론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속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중동사태발 비료 및 농업용필름 수급 문제 관련해서는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으로 8월 말까지는 비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비닐도 6월까지 원료가 확보돼 있다”고 했다.

그는 “비료 사용량의 97%가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데, 지난해 말에 올해 쓸 비료량을 정해 미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 수요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농협 단위로 파악해보니 지역별로 재고가 부족한 지역이 있어 지역 간 물량 조정, 계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필요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언급됐다. 송 장관은 “휴전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상황이... 중동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추경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료, 원예, 축산, 식품 등 7개 부문으로 나뉘, 매일 가격이란 공급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업인이나 국민들 삶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서부발전, 소통·구매상담 상생모델 선포

서산에서 ‘WP 시너지 데이’ 개최

한국서부발전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소통과 구매상담을 결합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선보였다. 서부발전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충남 서산에서 ‘더블유피 시너지 데이(WP Synergy Day)’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 정복 서부발전 사장을 포함한 본사 및 사업소 담당자 30명과 수탁기업협의회, 참여 희망 중소기업 임직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일방향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서부발전 동반상생 담당자와 중소기업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구매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참여형 상생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

히 올하는 기계·전기·제어 등 서부발전 사업소 분야별 수요와 중소기업의 공급 역량을 직접 연계하는 일대일 현장매칭 구매상담회를 처음 도입해 참여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참여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뿐만 아니라 ▲서부발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력재단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술보호 제도 등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정책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소통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며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24일에는 본격적인 일대일 맞춤형 구매 상담이 진행돼, 각 사업소 담당자와 기업 간의 실무 중심 협력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매립가스 기술로 볼리비아 탄소감축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타크루즈 매립장서 메탄 감축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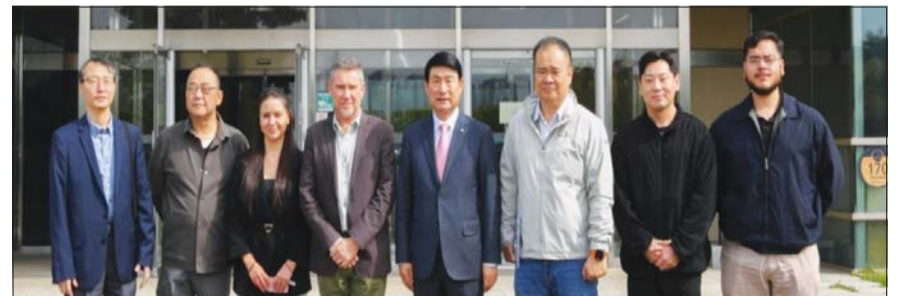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한국을 찾은 볼리비아 대표단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르헤 아빌라 기획개발환경부 차관이 이끄는 볼리비아 정부 대표단은 지난 23일 인천 서구 소재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사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시설을 둘러보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해 우리 측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정보·의견 등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볼리비아 정부와의 ‘국제감축사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송병영 공사 사장은 대표단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현황을 비롯해,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활용한 감축사업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또 양국 간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볼리비아 대표단은 공사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매립가스 발전시설, 침출수 처리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실제 운영 기술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공사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공사는 현재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시 산미구엘 매립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사업 확대 가능성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송병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이달 23일 인천 서구 본사에서 볼리비아 정부 대표단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부발전, 동반성장 평가 11년 연속 ‘최우수’

134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기록
해외사업장 열어 中企 수출길 넓혀
KOMIPO FACTORY로 업 전환 지원

한국중부발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독보적인 상생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전체 134개 대상 공공기관 중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기록한 곳은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27일 중부발전에서 따르면, 중부발전은 그간 공공기관 최초로 해외 발전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독창적인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운영 중인 해외사업장을 중소기업의 실증 시험장(Test-bed)으로 개방하고, 현지 발주처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해 진입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장벽을 낮추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라는 산업적 변화에 발맞춰 협력사들의 ‘업의 전환’을 집중 지원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동반진출 연구회’ 운영은 물론, 발전사 최초의 현지 생산

거점인 ‘KOMIPO FACTORY’를 인도네시아에 준공해 협력사에 무상 제공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5년 협력사 수출액은 2495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혁신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중부발전은 발전 현장의 데이터와 실증 공간을 민간에 과감히 개방하고, 국산 NP-U(인공지능 반도체) 현장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공지능 전환(AI)을 선도하고 있다.

실질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AI 누수 탐지 시스템’은 95%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설비 감시 로봇’ 도입 이후에는 발전소내 설비 인명사고 제로(Zero)를 실현하는 등 안전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hys@metroseoul.co.kr

‘친환경 컨테이너선’ 국내인도 순항

해양진흥공사, 금융지원 결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실시한 친환경 선박 대상 금융지원의 결과, 국내 선사가 발주한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선’ 8번째 선박이 국내에 인도됐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이달 상순 전남 영암 소재의 HD현대삼호에서 HMM의 9000TEU급(1TEU=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 컨테이너선 ‘라임(LIME)’호 명명식이 열렸다. HMM이 국내 선사 최초로 발주한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선이다.

라임호는 기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기반으로 순항된다. 라임호 선박 건조는 HD

현대삼호가 맡는다. 이는 국내 해운과 조선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한 상생의 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HMM은 지난 2023년 국적 선사 중에서 처음으로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선박 9척을 발주했다. 라임호는 9척의 친환경 선박 중 8번째 인도된 선박이다. 이로써 마지막 1척의 인도만 남겨두게 됐다.

HMM의 대규모 친환경 선대 확보는 해진공의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해진공은 국내외 9개 금융기관(국내 4개, 해외 5개)이 공동으로 참여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조금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HMM이 우수한 금융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도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hys@metroseoul.co.kr